

스의 직접판매(종래에는 서비스 공급자를 통해서만 가능)가 가능하게 된다.

프랑스의 電話番號, 1995년말에는 10자리수로

프랑스텔레콤과 프랑스 정부는 1995년말에 새로운 전화번호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프랑스의 전화번호체계는 1985년말에 도입된 8자리시스템으로 점차 포화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화번호체계는 2050년까지의 가입자 증가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사용자와의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1994년 6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새로운 전화번호체계는 전국을 5개 지역으로 나누어 '0Z + 8자리수'를 다이얼 하며 국제통화는 '00 + 8 자리수'이다. 또한 EU의 전화번호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 긴급용번호인 '17(경찰)', '18(소방)', '15(구급의료)'를 대신하여 유럽공통 번호인 '112'를 사용한다. 각종 긴급서비스에 대한 조정기관의 운용관리는 아직 주무관청이 검토중이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단이 설치되었다.

DBP텔레콤의 監督委員會, 料金賦課體系 改定을 承認

DBP텔레콤은 앞으로의 전기통신 자유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비용수준을 반영한 요금부과체계 개정계획을 책정하고 DBP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다. DBP텔레콤의 감독위원회는 1993년 12월 중순 DBP텔레콤에서 제출한 대폭적인 요금부과체계 개정계획(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승인했다. 새로운 개정계획은 DBP텔레콤이 부가가치세를 유저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사가 부담하여 결국 유저에게 13%의 요금인하 효과를 준다. 또한 시간대를 4가지로 구분하여 시내전화료는 인상하고 장거리 및 국제전화료는 인하한다. 즉, 앞으로는 현행의 보통요금시간대와 할인요금시간대가 세분되어 표준요금시간대, 피크타임대, 휴일요금시간대, 심야요금시간대로 되며 이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종전보다 더 정확한 요금부